민선 5기 충남도와 민선 6기 정책에 대한 제언

박태구
중도일보 내포본부 차장

민선 5기 충남도는 도청사를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 · 예산)로 80년 만에 이전하고 환황해 권시대 중심도시로써 초석을 다져왔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3농혁신(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과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등 3대 혁신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3농혁신의 5대 전략과제별 주요 성과를 보면,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은 △10a 당 쌀 생산량(543㎏) 전국 1위 △친환경 인증 면적 2배 증가 △도 대표 광역 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전문 재배단지 1,000㏊ 조성 및 전국 833개 대형매장 입점 지원 △산채재배단지 확대로 임업소득 증대 기반 구축 △4대 수산물(바지락 · 갯벌참굴 · 김 · 해삼) 명품화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혁신의 경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써 왔으며, 제로-100 프로젝트, 행정정보 공개, 직무성과 계약제 · 혁신대학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6월 열린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는 충남도의 행정혁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분권혁신 실현을 위해 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 제고 및 지방분권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으며, 자치아카데미와 시범사업, 생활자치 정착 등에 노력해 왔다.

민선 6기에서는 민선 5기에 추진해 왔던 주요 과제들의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선 5기의 3대 혁신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문화, 복지정책 등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을 꽤해야 한다.

민선 6기 출범 후에는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기반을 토대로 도정의 새로운 비전, 지표, 역점 시책 등 보다 발전적인 도정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지방자치 분권 · 행정혁신 추진 △도청 이전 · 사회 및 도시 인프라 구축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 개방 통상시대 대비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발굴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포신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비전 실현 등 환황해권 시대 '충남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서해안 항만 개발 등 충남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사업화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포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행정구역이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분리돼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양 지역의 통합이 필요충분조건이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다. 수백명의 희생의 값으로 안전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 역시 '안전총괄과'의 담당관 승격 등이 예상되고 있다. 부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 예산도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도내에서는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게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룩했다. 때로는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 경제와 함께 복지 측면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 중이다. 이런 시대에 사람 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복지정책의 틀도 바꿔야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라 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수혜계층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 해 나가야 한다.